

제2장 청소년 시절

강명석의 유년 시절에 조선 각 지역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학교들이 무려 950여 곳에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1984),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33~134.] 그런데 강명석의 출생지인 밀양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아닌 독지가(篤志家)와 지식인(知識人)들에 의해서 사립학교들이 여기저기 설립되어 나라의 운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인재양성(人材養成)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중추원[中樞院, 고종 때 국정 전반의 주요 법령과 현안을 심의, 검토하여 주요 정책에 반영하던 관서] 의관(議官)이었던 유생(儒生) 손정현(孫貞鉉)이 지방 수령[守令, 조선 시대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의 고을을 다스리던 지방관의 총칭으로 군수와 현령(縣令)의 준말 이기도 하며 속칭 ‘원님’이라고도 부른다.]의 자문 기관인 유향소[留鄕所, 지방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의 부속건물로 수령의 집무실인 호장청(戶長廳)을 학교시설로 하여 1897년 11월 밀양 최초 근대학교이며 현 밀양초등학교(密陽初等學校)의 전신인 ‘사립개창학교(私立開昌學校)’를 설립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밀양초등학교; ‘밀양초등학교 연혁’.]

이후 밀양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강명석의 출생지에도 설립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97년부터 1906년 사이에 기독교 계통의 사립 영신소학교(永信小學校)가 설립되었다. 당시 초등교육기관은 1895년 7월 19일(금) 「소학교령[小學校令, 고종 32년, 칙령 제145호]」을 공포하여, 3년제 심상과(尋常科)와 2, 3년제 고등과(高等科)로 나누어 실제 수업연한은 5·6년이였다. 그러다 1905년 11월 17일(금)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이후 일제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에서 1906년 8월 27일(월)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광무 10년, 칙령 제44호]」을 공포하였는데, 이때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수업연한은 4년으로 줄었으며 심상과와 고등과를 하나로 통일하였다. [김승(2004), 「한말·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제15호, 부경역사연구소, 12; 밀양교육청(2006), 『밀양교육사』, 119, 122~123.]

여기서 을사조약이란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剝奪)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으로 원명(原名)은 조일협상조약(朝日協商條約)이며, 제2차 조일협약(第二次朝日協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그리고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도 한다.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 1906년 2월 1일(목) 한양(漢陽)에 조선통감부[朝鮮統監府,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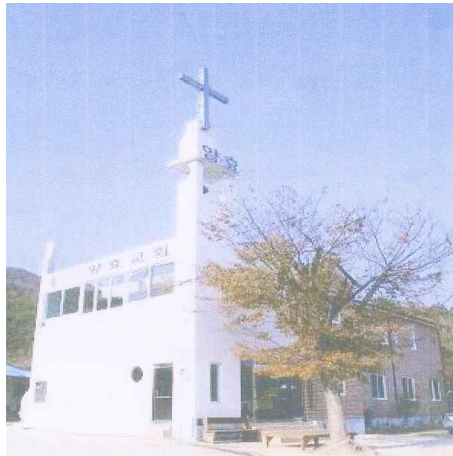
명분으로 설치한 통치기구]가 설치되고, 3월 2일(금) 조약 체결의 원흉(元兇)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이등박문), 1841.~1909.]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조선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內政)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인 대한제국에 직접 명령과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부터 조선은 실질적으로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사립 영신학교는 양호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건물을 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경남일보(慶南日報)』(1910.11.7.)의 ‘밀양지역 신식학교 명단’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영신학교는 직원 13명, 학생 13명, 1년 경비 140,000원”이라고 소개하였다. [경남일보는 1909년 10월 15일(금)에 진주에서 창간된 국내 최초 지방신문으로 1914년 말에 폐간되었다.] 그러나 영신학교가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전해진다.

“당시 양호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기숙하며 가르쳤다.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학생들을 돌려보냈는데, 그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권했다. ‘학생 여러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만 교회에 가서는 안 되고 부모님도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학

교에도 오지 마세요.” [『밀양지역기독교 100년사』(2003, 179.)]

당시 남달리 교육열이 강했던 강명석의 어머니 신재선은 강명석이 당시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인 8세가 되자 1908년 4월 1일(수) 영신학교에 입학을 시켜 근대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명석은 당시 학제가 4년제 보통학교였기에 4년 후인 1912년 3월 26일(화) 졸업하였다. [「강명석 이력서」(간세이가쿠인 대학 입학원서 첨부).]



강명석의 모 교회인 양효교회 현 예배당

강명석은 사립 영신학교를 졸업한 그해 1912년 4월 1일(월) 경상남도(慶尙南道) 밀양군(密陽郡) 부북면(府

北面) 춘화리(春化里)의 신광학교(新光學校) 중등과(中等科)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졸업을 3개월 앞두고 폐결핵(肺結核, pulmonary tuberculosis)에 전염(傳染)되므로 1914년 12월 20일(주일) 자로 신광학교를 수료하고 투병(鬪病)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명석 이력서」.] 당시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에는 40만 명 정도의 폐결핵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1918년에 조선총독부령 제4호에 의해 제정된 「폐결핵 예방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을 공포할 정도로 널리 퍼진 질병이었다. [「가장 낭만적인 하지만 치명적인 그것은...」, 『프레시안』 (2009.11.6.)]

여기서 강명석의 모교인 신광학교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밀양군 부북면 춘화리에는 밀양 최초교회인 춘화장로교회[예장 통합,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솔밭등길 50]가 있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설립한 사립 경신학교(敬新學校), 사립 일신학교(日新學校), 사립 경성학교(敬成學校)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강만길(2003), 『밀양의 독립운동사, 밀양문화원, 190~192; 김승, 「한말·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205.] 그러나 강명석의 모교인 사립 신광학교를 찾기 위해 2012년 3월 29일(목) 양효교회 홍성진 목사와 함께 밀양교육청, 밀양도서관, 그리고 주변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인터뷰(interview) 등을 통해 탐문(探問)했지만, 찾지 못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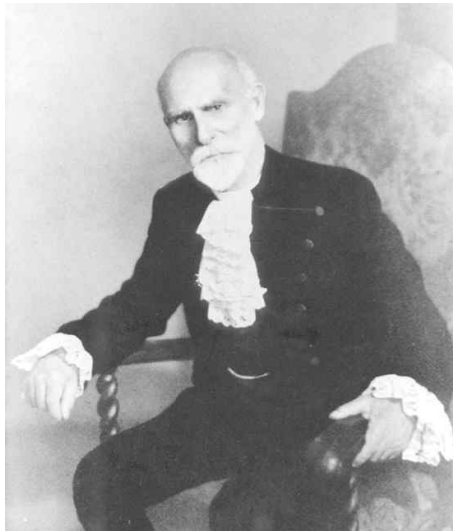
정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필자가 양효교회를 방문했을 때 강명석의 집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양효리에는 강명석 목사의 집안인 강 씨들이 살았고, 그분들이 양효교회를 출석하였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 씨들이 모두 외지(外地)로 이사를 하였기에 현재는 그 후손들이 양효리에는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진 인터뷰(2012.3.29.)]

강명석의 폐결핵을 위한 투병 생활은 당시 치료 약(특효약)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력을 높여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신재선은 기도하면서 영양식을 먹이고, 신선한 공기(空氣)를 마시게 하고 따뜻한 햇볕을 쬌도록 하는 등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하였다. 그 결과 그는 1년 9개월 만에 건강이 회복되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1916년 10월 부모 곁을 떠나 경상남도(慶尙南道) 부산부(釜山府) 초량동(草梁洞) [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경남무역주식회사(慶南貿易株式會社) 서기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년 4개월 만인 1918년 2월 퇴사하였다. [「강명석 이력서」]

강명석은 경남무역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에 호

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의 선교지역에 설립된 부산장로교회[釜山長老教會, 현 부산진교회, 예장 통합,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17번길 16]를 출석하였다. 부산교회는 1890년 11월 부산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 베어드[Baird, 미국 인디애나(Indiana)에서 출생(1862.6.16.), 하노버 대학(Hanover College) 졸업(1885.),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Seminary) 졸업(1888.) 후 목사안수가 미국 공사 헤어드[A. Heard, 하드, 하덕(何德)]의 도움을 받아 약 80평(264.46281m²) 대지의 한옥(韓屋)을 예배당으로 사들여 설립된 부산 최초의 교회이다.



맥켄지(Mackenzie) 선교사[크리스찬리뷰]

강명석이 출석할 당시 부산교회는 조선인 목회자로

1910년 6월 평양신학교[平壤神學校, 1901년에 설립된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부산지방 최초 장로요, 최초 목사인 심취명[沈就明, 1875.~1958.]이 사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소속 맥켄지[James Noble Mackenzie, 매견시(梅見施), 1865.~1956.] 목사였다. 이때 강명석은 부산교회를 출석하였으며, 심취명과 맥켄지(Mackenzie)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교회가 강명석의 두 번째 출석교회이다.



심취명 목사[m.blog.naver.com]

이러한 인연으로 맥켄지(Mackenzie) 선교사가 원장으로 있는 부산(釜山) 감만리(戡蠻理) 한센인(Hansen人)들의 병원인 상애원(相愛園)에서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시절인 1924년 7월 15일(화)부터 8월 14일(목)까지(1학년), 1926년 7월 15일(목)부터 8월 14일(토)까지(3학년) 두 차례의 여름방학 때 봉사 활동을 하였다. 당시 강명석과 맥켄지(Mackenzie)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기독신보』(1926.11.3.) 「感謝(감사), 告白(고백), 呼訴(호소)(2)」, 4.”에 게재된 강명석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강명석) 학교(간세이가쿠인대학, 일본)에서 맥켄지(Mackenzie) 목사(선교사)로부터 허락하는 답장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7일(수)까지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저는 허락하여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맥켄지 목사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산에서 3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덕분에 그를 만났으며 상애원(상애원 [相愛院, 부산 나병원(감만동)]에서 봉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강명석은 경남무역주식회사를 퇴사한 6개월 후인

1918년 9월 경상남도(慶尙南道) 웅천군(熊川郡) 마천리(馬川理)에 있는 계광학교[啓光學校, 웅동중학교(熊東中學校) 전신이다. 웅동중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116번길 50(두동)에 있다.]의 교원(敎員)으로 근무하였다. [「강명석 이력서」] 강명석이 근무했던 계광학교는 1908년 10월 20일(화) 조선인들에 의해 설립된 후에 1911년 미국 북 장로교회 스미스[Walter E. Smith, 심익순(沈益順), 1874.~1932.] 선교사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라이올[David M. Lyall, 나대벽(羅大闕), ?~1921.] 선교사의 주선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4년제 보통학교와 2년제 중등과 과정이 있었다. [류춘우(2012), 「사립학교의 재발견」, 웅동중학교, 1.]

강명석은 부산교회의 맥켄지(Mackenzie) 선교사와 심취명 목사의 추천으로 교사로 부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에 관하여는 웅동중학교에 ‘전신 계광학교의 기록이 보존(保存)되어 있지 않아서’ 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웅동중학교 행정실 전화인터뷰(2011.6.21.)] 강명석은 1919년 4월 3일(목) 계광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앞장서서 일으킨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을 접하게 된다. 당시 그가 이 항일운동(抗日運動)에 참여했는지에 관하여는 알 길이 없지만, 그의 성품상 참여했을 가능성도 엿보이며,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거나 앞장서지 않았던 것

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강명석은 주모자(主謀者) 명단에도 없고 유치장(留置場)에 갇히거나 옥살이를 했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듬해인 1920년 3월 계광학교를 사직했기 때문이다. [「강명석 이력서」] 그리고 당시에 참여자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주모자 격만 체포(逮捕)하여 형을 살게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모자 격인 수십 명만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게 압송(押送)되었으며…。 검거된 선생과 학생 등 모두 32명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마산 형무소(刑務所)에 13명이 수감(收監)되어 6개월에서 1년 6개월간의 옥고(獄苦)를 치렀다.” [류춘우, 「사립 계광학교의 재발견」, 1.]